

올해 메가픽셀급 카메라폰의 본격 등장으로 카메라폰 시장에 또한번 휴대폰 부품업체들의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휴대폰용 부품업체 입장에서 보면 메가픽셀급 제품시장 안착은 곧바로 매출의 수직 상승과 수익 구조 개선으로 직결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확보하는 셈. 카메라폰 콘트롤러 기능과 MPEG4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탑재한 칩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시장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

황금알 낳는 카메라폰 시장을 선점하라!

휴대폰 부품업체 잇따라 메가픽셀급 제품 출시

엠텍비전, 차세대 휴대폰 멀티미디어 칩 'MV8601' 출시



CAP시장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엠텍비전(대표 이성민)은 차세대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칩 'MV8601'을 출시했다. MV8601은 500만 화소급 고기능 카메라, 3D게임, 동영상,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해주는 차세대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칩이다.

이르면 9월 양산에 들어갈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모바일폰용 3D그래픽엔진을 하드웨어로 구현해 기존 소프트웨어 기반의 3D엔진보다 5~10배 향상된 속도와 생동감으로 3D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500만 화소급 이미지센서 지원으로 카메라폰과 디지털카메라의 본격적인 화소 경쟁이 접쳐진다. MV8601의 출시로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3D게임 및 캠코더폰용 칩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디지털 카메라를 대체한다 ● 엠텍비전 이성민 대표 | 'MV8601'의 개발로 앞으로 휴대폰 제조업체는 국산 IC를 사용해 500만 화소급 카메라폰 개발 및 더욱 박진감 넘치는 3D게임, 동영상 촬영, MP3 재생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광학 줌 및 Auto Focus 기능을 지원하는 CSP와 함께 카메라폰을 디지털카메라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코아로직, 동영상 촬영과 음향을 동시에 'CL722S32' 출시



모바일 멀티미디어 SoC(System on Chip) 전문기업인 코아로직(대표 황기수)은 2메가 픽셀급 CAP 'CL722S32'를 개발, 한발 앞서 고화질 카메라폰시대의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CL722S32는 JPEG 코덱과 Motion-JPEG 하드웨어 코덱을 사용해 동영상 캠코더 기능은 물론 Time Stamp 기술을 채택하여 동영상 촬영시 음향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또, 디지털줌 사용시 광학줌과 같은 연속적 줌인 효과를 구현하였고, I/O 및 코어 동작전압을 1.8V로 최소화하였다. CAP의 핵심기술인 JPEG코덱 기술의 축적으로 경쟁기업 대비 1/2 수준의 메모리 사용으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앞으로 코아로직은 5메가급 이미지센서를 지원하는 CAP와 MPEG4 기반의 MAP를 선보일 전망으로 동영상 촬영, 3D게임, 멀티메시징 서비스가 가능한 고화질 멀티미디어폰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세계 시장을 개척한다 ● 코아로직 황기수 대표 | CL722S32와 더불어 앞으로 선보일 5메가급 이미지센서를 지원하는 CAP, MPEG4 기반의 MAP를 통해 휴대폰의 복합화 및 멀티미디어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마련하겠다. 또, 코스닥 입성을 계기로 사업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세계적인 모바일 멀티미디어 SoC기업으로 도약해 5년내 10억달러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